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신문사 규모를 중심으로

남효윤·구교대*

(대구과학대학 방송연예과 교수·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대학 교수)

본 연구는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 보도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지역언론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형태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신문사의 규모와 보도자료의 이용률, 의존도, 그리고 보도성향간 부적인 관계를 가설화하여, 지방정부(경북도청)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와 동일 권역내 4개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문사의 규모는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률과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신문사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과 의존도는 낮으며,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신문의 규모와 보도성향간 정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규모가 작을수록 중립적 보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언론인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보도자료 이용률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언론사 조직과 역동적으로 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해석이 이뤄졌다.

키워드: 신문규모, 보도자료, 지역신문, 지방정부, 보도성향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언론사 기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요 취재원(정보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정보교환 측면에서 상호 친밀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취재원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이용한다. 정부는 물론 전국의 크고 작은 홍보주체들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그것이 기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들 홍보주체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신문에 기사화 되도록 애쓰고 있다. 특히 각 지방정부¹⁾는 지난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홍보 관련 부서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민선 자치단체장의 지적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홍보주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보도자료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보도자료의 경우 홍보주체가 개인이나 집단의 좋은 점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언론이 이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특정 집단의 홍보매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역신문²⁾은

-
- 1)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기관을 의미한다. 즉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방의회와 하부행정기관(기초자치단체)은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명칭과 관련하여 아직도 용어사용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2002a)은 일간지역신문을 '지방일간지' 즉, '지방신문'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세철(1997)은 종전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온 '지방신문'이라는 용어를 '지역신문'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방'이란 서울로 대변되는 중앙에 비해 모든 면에서 결핍된 상태의 지극히 격화된 종속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기관 보도자료 의존관행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장호순, 2001). 또한 신문의 증면경쟁과 방송의 다매체·다채널 상황으로 인하여 언론체계 ‘역할담당자’들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오창우, 2000). 따라서 지역신문들은 지방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책 및 시책을 중요뉴스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보도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뉴스가치에 관계없이 중요하게 취급함으로써 지방정부 홍보와 지적선전에 동원되는데 비판을 받고 있다(고영철, 2003).

보도자료에 대한 기자들의 지나친 의존 현상은 취재 시스템에 있어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과 발표 저널리즘, 언론사 내의 열악한 인력운영, 기자 개인의 자질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 설명되어왔다(박종화, 2003; 이재경, 김진미, 2000). 이러한 보도관행은 심층보도 및 지역 밀착보도 부족과 중앙일간지와 차별화 되지 않은 편집방향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 결합해 결국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역언론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외면당하고 있는가는 지역신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도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2002b)이 언론매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일간신문의 신뢰도는 2.97로 잡지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라디오의 신뢰도 3.46과 지상파 방송의 3.27, 중앙일간신문의 3.13, 케이블 방송의 3.12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결국 지역언론은 수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언론사 난립에 따른 경쟁심화, 광고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영악화, 중앙일간지들의 지역시장 잠식 가속화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그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이라는 용어는 전체와 부분과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지역간 차별성이 없으며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어 ‘지방’이란 용어 보다 더욱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언론(신문)’이라는 용어 대신 ‘지역언론(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것이다.

지역신문의 취재 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신문이 주요 취재원인 지방정부의 보도자료를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신문이 지방정부의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요인이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신문은 지방정부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데다 같은 지역 내라는 동질성 또는 공감대가 중앙신문보다는 강한 반면, 각 신문사별로 규모(사세)나 재무상태, 신문사의 내·외적인 취재시스템 등에서 있어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단체장들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 반면 언론의 상황은 외환위기 등으로 오히려 열악해 짐에 따라 사세가 약하거나 규모가 작고, 신생 언론사일수록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현상은 더욱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신문의 기업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이용과 보도행태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가설화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신문의 규모가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도성향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양적(quantitative) 내용분석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질적(qualitative)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관계문헌 검토

1) 취재원으로서의 보도자료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뉴스 미디어에 대한 의제설정기능

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어왔다(Hale, 1978; Turk, 1991). 특히 공직자들 통해 매개되거나 관료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정보들은 매스 미디어 채널에 의해 더욱 선호되어져 왔다(Nimmo, 1978; Sigal, 1973; Schudson, 1976). 취재원으로서의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보도자료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의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사취스맨(Sachsman, 1977)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언론을 분석한 결과, 많은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손쉬운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국내 언론사들의 보도자료 의존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창우(200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 일간신문 기사의 2/3 이상은 언론인들의 직접 취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이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장호순(2001)은 또 한 한국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사의 획일화, 언론의 취재원 종속 및 대변, 심층성 및 전문성이 결여된 기사의 양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병호·김춘식(2001)은 재정경제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 4개 중앙신문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얼마나 기사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종합지의 경우 보도자료 기사반영 비율이 평균 33.7%,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평균 45.6%로 나타났다. 또한 보도성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보도는 9.1%에 그쳤고, 나머지 90.9%는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자들은 보도자료 의존 때문에 언론사는 정부 보도자료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쓰기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보도자료가 뉴스 미디어의 주요 취재원으로 다뤄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인, 즉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제시되어 왔다(Gandy, 1991). 사회적 요인을 지적하는 학자들은 개별 언론인들의 태도나 그들의 언론 조직이 뉴스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언론인들과 뉴스 소스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어왔다

(Gans, 1980; Hess, 1981). 즉, 보도자료가 뉴스 기사화 되는 것은 보도자료가 가진 뉴스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기자와 취재원간의 협력 등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Gieber & Johnson, 1961).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기 위해 취재원이 기자들과의 친분관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행하고 있다. 이행원(1999)은 인적 취재원이 정보지원이라는 활동을 통해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박진용(1999)은 이러한 인적 취재원의 영향으로 인해 기자는 정보를 가진 취재원의 손바닥에 놀아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가 통신사의 기사에 의존하는 이유로서 많은 기자들을 여러 지역에 배치시킬 능력이 없는 언론사의 경제적인 이유가 제기되어왔다(McCombs & Shaw, 1976).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취재 기자들이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주어진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자료,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취재원이 뉴스 취재에 투자되는 비용, 시간, 위험요소 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Gandy, 1991).

2) 신문규모별 보도자료 이용형태

취재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언론사의 이용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요소들은 발행 부수, 편집 인력 수 등과 같은 언론사 규모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언론사 규모는 취재보도 과정에 있어 취재원에 대한 상이한 권력적 기능을 담당하여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언론사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언론사 기자들보다 취재원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압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언론사 규모에 따른 보도자료 이용형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연구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다.

스탬펠(Stempel, 1959)은 UPI 통신사 기사만을 이용하고 있는 미시간주의 6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통신사 기사 선택에 있어서 일치비율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신문사간 통신사 기사 선택에 있어 일치비율은 31.0%로 나타나, 분석된 6개 신문사간 통신사 기사 선택여부와 사용량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스탬펠(Stempel, 1962)은 기사 취재와 관련한 연구에서 신문사간 기사 취재에 관여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매 부수를 제기하고 있다. 판매 부수에 따른 신문사의 시장 규모가 뉴스 취재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유사한 작업환경에 처한 편집자들간에는 뉴스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한 반면 작업환경이 다른 편집자들간에는 뉴스판단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틴과 싱글트리(Martin & Singletary, 1981) 또한 주정부 보도자료의 기사화 빈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행 부수가 적은 신문일수록 주정부 보도자료에 더 높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방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송국의 시장규모가 취재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벌코위츠(Berkowitz, 1987)는 지방뉴스 방송국과 전국 네트워크 방송국의 공식정보원 의존에 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뉴스 방송국의 공식정보원 의존율은 49.3%, 전국 네트워크 방송국은 48.6%로 나타났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뉴스량은 지방뉴스 방송국이 75%, 네트워크 방송국은 71%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방송국의 규모가 공식정보원 의존율과 공식 채널 기사량에 다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를 공생적 관계로 보고 있는 워터스와 워터스(Walters & Walters, 1992)에 따르면, 취재원은 미디어 의제에 접근함으로써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유형보다 유리한 광고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보를 변화시킴으로써 현실을 규정하는 기회 또한 부여받는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뉴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뉴스 소스를 가질 수 있다. 채널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취재원, 즉 정부나 기업 홍보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언론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Sigal, 1973; Walters & Walters, 1992). 결국 취재원과 언론사 양자간의 관계 속에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존재하며, 표면적인 경쟁과 내면적인 협조가 자리잡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사 규모는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상윤(1995)은 지역신문의 규모³⁾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도하는 양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시의 규모가 다른 3개 신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문의 규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도하는 양상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문사 규모별로 특정 기사가 강조 또는 축소되는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규모가 가장 큰 신문의 경우 지역사회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그리고 주주와 밀접한 네트워크⁴⁾를 형성하여 가급적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거나 작게 취급하고 있는 반면 긍정적 기사는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규모가 가장 큰 신문에 반영된 기사는 권력구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2개 신문은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엘리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기사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비판의 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신문보다는 가계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신문이 더욱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 검토를 통해 언론사 규모가 뉴스 취재원에 대한 정보 선택과 보도성향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발행 부수, 편집 인력 수, 재무 상태 등으로 파악되는 신문사 규모가 지역언론의 주요 뉴스 취재원인 지방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여기서 신문의 규모란 자본의 규모, 종사자수, 광고 연간 게재량 등을 의미한다.

4) 여기서 사용된 네트워크이라는 개념은 자원의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연결망을 의미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논문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있어서 지역신문의 규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보도자료 기사화에 따른 보도성향에 있어 지역신문의 규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검토된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지역신문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과 보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이 제시되었다.

연구문제 1: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지역신문의 규모는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률과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1-2> 지역신문의 규모는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와 부적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지역신문의 보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지역신문의 규모는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지역신문의 보도성향과 정적관계를 가질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연구문제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출입기자들이 실제 보도자료 이용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 3>이 제기되었다.

연구문제 3: 지역 언론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4. 연구방법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신문사 규모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본 논문은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제기된 연구문제 1), 2)는 양적(quantitative)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검토되었고, 연구문제 3)은 실제 지방정부(경북도청) 출입기자들에 대한 질적(qualitative)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되었다.

분석대상은 경북도청(일선 시·군을 제외한 산하기관 및 사업소 포함)이 배포한 보도자료들과 대구지역 4개 신문사(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에 보도된 지방정부 기사들이 선택되었다.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대상으로 경북도청이 선택된 것은 대표적인 지방정부 기관이라는 연구자의 인식과 보도자료 수집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경북도청이 뉴스가치로서 대구시청과 대등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방정부 출입처 담당기자들의 평가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시기는 자료수집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2003년 1월13일부터 24일까지(보도자료 배포하지 않는 토, 일요일은 제외시켰음) 10일과 2003년 3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10일간, 그리고 2003년 4월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등 모두 30일간으로 하였다. 비록 편의의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이 수행되었지만 가의변인들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 수집시기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신문사 규모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신문사 규모는 선택된 지역 4개 신문사의 편집국 기자 수, 발행 부수, 자본금 등을 통해 파악되었다. 이들 항목에 의해 파악된 신문사 규모는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신문사의 보도자료 이용률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 동안 부분 또는 전체를 인용한 경북도청 보도자료들을 코딩하였다. 코딩은 신문별로 기사화되지 않은 보도자료는 '0', 기사화되었으면 '1'로 처리되었다. 보도자료 의존율은 분석기간 동안 지역신문에 게재된 경북도청 관련 기사를 모두 골라 이 가운데 보도자료가 사용된 비율로서 파악되었다.

<표 1> 대구지역 신문의 일반현황 및 신문사 규모 비교 (2003년 6월)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역사성 (창·복간일)		창간: 1946. 3.1	창간: 1945.10.11 복간: 1989. 4.19	창간: 1953. 6.1 복간: 1989.11.1 재창간: 2001.11.15	창간: 2001.9.1
소유형태		주식회사 (종교재단자본)	주식회사 (소유주 없음)	주식회사 (지역 기업자본)	주식회사 (개인 언론자본)
신문 규모	전체 직원수 (편집국 기자)	370명 (150명)	280명 (120명)	90명 (77명)	80명 (60명)
	자본금 및 재무상태	자본금-170억 자본잠식	자본금-106억 자본잠식 (법정관리)	자본금-25억	자본금-2억
	발행 부수 (유가 부수)	35만부 (27만부)	20만부 (18만부)	8만7천부 (7만부)	6만부 (4만5천부)
	발행 지면수	32면	28면	20면	16면

* 발행 부수(유가 부수)는 해당 신문사 광고국에서 광고주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수치로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님.

<연구문제 2>에서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기사화에 따른 보도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화된 보도자료의 보도시각을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등 3개 유형으로 유목화하였다. 보도자료 내용을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해 호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긍정적 기사,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은 중립적 기사, 보도자료 내용을 부정하거나 비판적으로 고쳐 쓴 것은 부정적 기사로 코딩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4명의 코더들에 의해 코딩되었으며, 분석유목과 변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보도자료와 기사, 그리고 코딩용지를 지급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더들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한 뒤 분석유목에 대해 코더간 신뢰도 검사가 실시되었다(Krippendorf, 1980). 보도성향에 대해서는 4명의 코더들에게 지방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반영한 기사 40건을 제공한 뒤 상호간의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6쌍의 평균 일치도를 구해 이를 종합적 신뢰도 계수산출 공식(차배근, 1994)을 통해 계산된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기술적 통계가 사용하였으며, 지역신문의 규모가 보도자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케어(x2) 검증이 실시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10.0)이 사용되었다.

끝으로 <연구문제 3>을 위해 전체 12명의 경북도청 출입기자(신문사 및 방송사 기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형태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이후 신문사 규모별 영향 분석과 관련된 4개 신문사 4명의 기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심층 인터뷰가 이뤄졌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귀 신문사에서 지방정부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 귀하는 어떤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보도자료 취재관행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기사화 요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사화 부탁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5. 연구결과

1) 지역신문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과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4개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정부(경북도청)로부터 발행된 보도자료는 전체 197건이며, 이들 자료가 대구지역 4개 지역신문에 기사화되었는지를 내용분석결과를 통해 비교 분석되어졌다. 지역신문별 보도자료 이용현황을 분석한 <표 2>에 따르면, 규모가 가장 큰 매일신문의 경우 전체 197건 가운데 46건(23.4%)을 기사화해 보도자료 이용률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문사 규모에서 그 다음 순인 영남일보와 대구일보가 각 70건(35.5%)과 71건(36.0%)을 기사화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신문은 전체 197건 중 106건(53.8%)을 기사화해 경북도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을 기사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규모가 다른 지역신문간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chi^2=42.582$, $df=3$, $p=.000$). 따라서 <연구가설 1-1>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행 부수가 적고, 편집국 인력이 적은 신문일수록 보도자료 이용률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2>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률

단위: 건, ()는 %

신문명	기사화 됨	기사화 안됨	합 계
매일신문	46(23.4)	151(76.6)	197(100)
영남일보	70(35.5)	127(64.5)	197(100)
대구일보	71(36.0)	126(64.0)	197(100)
대구신문	108(54.8)	89(45.2)	197(100)
평 균	75(37.4)	122(62.6)	197(100)

지역신문의 규모가 전체 지방정부 관련기사 중 지방정부 보도자료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설 1-2>가 제시되었다. 다음의 <표 3>에 따르면, 지방정부 보도자료 의존도는 분석된 4개 신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매일신문이 80.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영남일보가 86.4%로 나타났다.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신문이 90%의 보도자료 의존기사 비율을 나타내었고, 규모 면에서 세번째인 대구일보가 94.7%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매일신문과 대구신문 혹은 대구일보 사이에는 보도자료 의존기사 비율의 차가 상당한 높게 나타났다. 신문사 규모에서 세번째와 네번째 신문사간 의존도의 순위가 다소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신문사 규모가 큰 신문일수록 보도자료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2>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표 3> 지역신문의 전체 지방정부 관련기사 중 보도자료 의존기사 비율

신문명	전체 지방정부 관련 기사수	보도자료 의존 기사수	직접취재 기사수	보도자료 의존기사 비율
매일신문	57	46	11	80.7
영남일보	81	70	11	86.4
대구일보	75	71	4	94.7
대구신문	120	108	12	90.0
평 균	83.3	73.8	9.5	88.6

본 논문에서 4개 지역신문의 평균 보도자료 의존기사 비율은 88.6%로 나타났다. 즉 지역신문들이 지방정부와 관련된 기사를 쓸 때 10건 중 약 9건 정도를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도자료 의존도가 전체기사의 2/3선 또는 80%에 이른다고 밝혀진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의존도는 외국이나 국내 중앙언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앙언론사의 규모가 지역신문사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제기된 보도자료 이용과 의존도에 대한 신문사 규모의 영향이 전국지와 지역지간의 보도자료 이용형태의 차별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2) 보도자료 보도성향에 대한 신문사 규모의 영향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설 2-1>가 제시되었다. 신문의 규모에 따른 보도성향에 있어서는 신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chi^2=11.233$, $df=6$, $p=.081$). 그러나 아래 <표 4>에서 보듯, 보도성향에 있어서 규모가 가장 큰 매일신문의 경우 긍정적인 기사 비율은 17.4%로 가장 낮은 반면,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신문은 3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보도성향에 있어서도, 매일신문은 4.3%로 가장 낮은 반면

대구신문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모 면에서 중간정도에 있는 영남일보와 대구일보는 보도자료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성향을 보여준 기사의 수가 매일신문보다 모두 많거나 대구신문보다 모두 적었다. 즉 규모에서 가장 큰 매일신문은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가 모두 적은 반면, 신문사 규모에서 가장 적은 대구신문은 긍정적, 부정적 보도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보도성향에 있어, 규모가 작은 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보도성향을 보이고 규모가 큰 신문일수록 긍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다룰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고 있다.

제기된 연구가설 외에 보도자료에 대한 중립적 보도성향은 신문사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규모가 큰 신문사는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 평가적 측면(긍정적 혹은 부정적)보다는 영세 규모의 신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뉴스보도에 대한 고려가 신문사 규모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표 4>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보도성향

단위: 건, ()는 %

신문명	긍정적 기사	중립적 기사	부정적 기사	합 계
매일신문	8(17.4)	36(78.3)	2(4.3)	46(100)
영남일보	15(21.4)	52(74.3)	3(4.3)	70(100)
대구일보	13(18.3)	54(76.1)	4(5.6)	71(100)
대구신문	35(32.0)	63(58.3)	10(9.3)	108(100)
평 균	18(22.4)	51(71.7)	5(5.9)	74(100)

한편 위의 <표 4>에 따르면, 지역신문들의 경우 대구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신문이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면서 약 95%정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거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해 지방정부가 의도한 대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의 관계문헌검토에서 살펴본 중앙신문의 90.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지역신문이 지방정부의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신문이 지방정부의 매우 효과적인 PR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발로 뛰는 기사를 더 많이 발굴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행정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지역언론인들의 보도자료 이용형태에 관한 인식

보도자료 이용형태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 앞서 12명의 경북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현재 취재관행상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제기된 질문에 대해 '보도자료 의존관행'이라고 응답한 기자는 5명으로 나타나, 기자들 스스로 지나친 보도자료 의존관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확인취재 부족'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각각 2명, '과도한 기사부담', '회사측 지원부족', '기자들의 특권의식'이라고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기자들은 기사취재에 있어 언론사의 관행적 차원을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그 응답들에 대한 체계적 유목화가 이뤄졌다. 기자들은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보도자료를 기사화해달라는 부탁을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기자들이 한 달에 적게는 1회 이상에서, 많게는 거의 매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도자료 기사화를 부탁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화로 부탁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직접 언론사를 방문해 부탁한다'는 응답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탁한다', 'E-메일로 부탁한다'는 응답이 각각 16.7%를 차지하였다. 기자들에게 지방정부 보도자료를 기사화 할 때, 어떤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순서대로 응답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 ‘뉴스가치’,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친분관계’, ‘회사의 방침’, ‘지면사정’ 순이었다. 따라서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 ‘뉴스가치’ 뿐만 아니라 ‘친분관계’와 ‘지방정부에 대한 회사의 방침’ 등 개인적 차원과 언론사 관행적 차원에서의 통제요인을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요인들이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이용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분석된 12명 중 5명의 기자가 ‘기자의 시각 또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2명의 기자가 ‘언론사의 사세 및 규모의 차이’와 ‘언론사간 뉴스가치 판단기준 차이’를 언급하였다. 그밖에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밀도’, ‘지면사정’, ‘언론사의 방침 및 영업전략 차이’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명씩이었다. 따라서 지역언론인들은 보도자료 기사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자들의 개인적 차원과 언론사내 조직차원의 통제를 들었다.

4) 신문사 규모별 보도자료 이용형태에 대한 인식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기 위해 앞서 분석된 4개 지역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앞서 분석된 4개 신문의 경북도청 출입 기자들로서 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급(차장 대우 포함)들이었다. 분석된 4개 지역신문 가운데 규모면에서 가장 큰 신문사에 근무하는 M기자의 경우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앙뉴스를 비중 있게 취급하는 편집방침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편집방침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정보들이 뉴스가치가 상당히 미흡하여, 신문의 질적 차별화를 위해 필요하다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신문은 아직도 중앙뉴스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편집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신문 보면 중앙뉴스가 1면 톱에 올라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구시청이나 경북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 관련한 뉴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기가 다른 신문보다는 어렵다고 봐요. ...자기네(경북도청)들이 자기들이 한 일들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배포하는 것이 보도자료인데, 그것을 매일 보도할 만큼의 뉴스가치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보도자료를 무분별하게 기사화 할 경우 신생신문들과 차별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문의 신뢰도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음... 다시 말해 신문의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처럼 M기자가 소속된 신문사는 보도자료 기사화에 있어 좀 더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사화된 보도자료들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다소 관대하게 다뤄지는 보도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사의 질적 차별화와 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보도자료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뭣합니다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국장이나 직원이 간절히 부탁할 때 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위에서 기사화하려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탁 받고 쓰는 기사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쓰겠습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써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잘 챙겨봐라”는 것이 “잘 써줘라”는 얘기잖아요. 또 안면 때문에 보도자료를 뒤집어쓰기란 어렵죠. 출입처를 들고 돌다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니까 솔직히 그것도 고민이에요. 이는 안면에 뒤집어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분석된 신문 가운데 두번째로 규모가 큰 신문사의 Y기자 역시, 위의 M기자의 경우와 같이 지방정부 고위층이나 해당 부서 직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가 종종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청의 해당부처 실·국장들이 직접 부탁을 할 때에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재원과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Y기자는 제한된 경제적 요인의 필요에 의해 보도자료를 이용하거나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를 기사화 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 우리 신문 간부들이 도청간부들과 친해요. 전에 도청을 한번씩 출입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도청 관계자들에게 부탁 받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회사 간부에게 부탁 받기도 합니다. 부탁 받으면 특별히 뉴스가치가 없든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자료 이외에는 대부분 기사화해서 넘기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의 기사를 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편이죠.

한편 분석된 신문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신문사에 근무하는 T기자는 지방정부 보도자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T기자는 취재인력이 부족한데다 통신뉴스까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100% 기자들이 발굴한 기사로 지면을 채우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청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지방정부 보도자료가 배포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중 대부분을 기사화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특별히 지방정부 관계자의 부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장에게 보고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요? 우리 신문은 거의 다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기사를 쓸 기자는 별로 없지요, 그렇다고 연통(연합뉴스)을 받길 합니까. 나는 구조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기사로 다룰 때 보여주는 신문사의 보도성향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신문사에 비해 다소 자율적인 기사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소규모 신문이라고 차별하거나 외면할 때는 보도자료를 뒤집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내·외적 관여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신생신문인데다 웬만한 보도자료를 다 기사화해 주니까 아예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고맙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별 것 아니라는 식으

로 무시할 때요. 화나죠. 기억해두었다가 뒤집죠. 이때도 데스크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걸리는 것도 없고...

심층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보도자료 이용과 의존에 관한 요인으로서, 영세한 규모의 신문사 기자는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취재원과 신문사간의 사회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신문사의 기자는 취재원과의 사회적 관계 외에 신문사 조직의 편집방침과 뉴스가치에 대한 고려 속에서 보도자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신문사는 지방정부 외에 다양한 대체 뉴스 정보들을 생산할 수 있어 영세한 규모의 신문사 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도자료 이용 부담감이 적고, 편집국 취재체계가 뉴스가치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신문사의 경우 보도자료 이용과 의존은 비교적 적지만, 이들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데 있어서의 보도성향은 취재원과 더욱 밀착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영세한 규모의 신문사 기자보다 더 편중된 보도성향(긍정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언론을 홍보매체로 인식하여 무분별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 보도성향 등에 관한 신문사간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신문사들의 보도자료 이용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기사 취재보도에 있어 취재원에 대한 신문사 규모의 영향 연구들을 바탕으로 신문사 규모별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형태가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보도자료 이용에 대해 실제 지역언론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사 규모와 보도자료 이용률, 의존도간 부적관계를 가설화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경북도청)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데 있어서 4개 지역신문은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지방정부(경북도청)에 관한 전체기사 중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기사 비율에 있어서도 신문사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의존율이 낮은 반면,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의존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신문사의 규모와 보도자료 이용률 및 기사 의존율이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어, 신문사의 규모가 보도자료 이용과 기사 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지역신문들의 보도성향에 대해 언론사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신문사 규모가 클수록 부정적 보도성향을 보여주고 규모가 작을수록 긍정적 성향을 가짐을 가설화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은 규모의 신문사는 지방정부 기사를 다룸에 있어 규모가 큰 신문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긍정적 보도성향과 부정적 보도성향 비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보도성향에 대한 신문사 규모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편집국 인원이나 발행부수 등과 같은 지역신문사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의 이용률과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규모가 큰 지역신문은 편집방침이나 취재원과의 사회적 관계가 보도자료 이용현황에 대한 주된 요인이 되고, 취재원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보도성향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 기사화를 억제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신문사인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편집국 인원의 부족, 제한된 시간과 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보도자료 이용과 보도성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장 영세한 신문인 경우 비록 보도자료의 이용과 의존은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보도성향보다

평가적(긍정적 혹은 부정적) 활동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앙지의 보도자료 이용현황에 관한 기존 연구들보다 지역신문들은 지방정부 보도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신문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앞으로 발로 뛰는 기사를 더 많이 발굴해 지방정부의 행정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경북도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지역 내 신문사의 기사에 제한되어,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앞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다양한 지방정부기관과 타 지역에 위치한 신문사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사 규모라는 요인이 중앙지와 지역지의 보도자료 이용형태에도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지속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철 (2003). 한국 지방일간지의 기능 및 역할 가정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언론학보』, 47권6호, 166~167.
- 김세철 (1997). 지역사회와 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진용 (1999). 기자학 입문. 서울: 나남.
- 박종하 (2003). 미디어 문장과 취재방법론.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서병호·김춘식 (2001). 정부의 대언론 홍보에 관한 연구-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2호, 216~249.
- 서정우·차배근·최창섭 (1978).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
- 이재경·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연구』, 161.

- 이행원 (1999). 취재보도의 실제. 서울: 나남.
- 오창우 (2000). 언론체계에 대한 Public Relations의 영향에 대한 고찰: 보도 자료 반영률과 보도자료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120~142.
- 원우현 (1987). 한국 미디어 문화비평. 서울: 나남.
- 유창하 (1989). 게이트키퍼의 내적 통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장호순 (2001). 한국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 분석. 2001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10월, 189.
- 정상윤 (1995). 신문사의 네트워크와 통제에 관한 연구: 지방신문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차배근 (1994).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한국언론재단 (2002a). 200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조사분석 2002-02).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재단 (2002b). 수용자의 매체이용실태와 만족도. 신문과 방송, 384호, 48~52.
- Berkowitz, D. (1987). TV News Sources and News Channels: a Study in Agenda-Building. *Journalism Quarterly*, 64 (3). 508-513.
- Gans, H. (1980).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 Nantage Books.
- Gandy, O. (1991). Beyond agenda-setting. In D. L. Proress, & M. McCombs (Eds.), *Agenda setting: Reading on media, public opinion, and policymaking* (pp. 263-27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ieber, W., & Johnson, W. (1961). The City Hall beat: a study of reporter and source roles. *Journalism Quarterly*, 38. 289~297.
- Hale, F. D. (1978). Press releases vs. newspaper coverage of California Supreme Court decisions. *Journalism Quarterly*, 55, 696-702.
- Hess, S. (1981). *The Washington reporter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rippendorff, K.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Inc.
- Martin, W. P., & Singletary, M. W. (1981). Newspaper Treatment State Government Releases. *Journalism Quarterly*, 58. 93-96.
- McCombs, M. E., & Shaw, D. L. (1976). Structuring the Unseen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8-22.
- Nimmo, D. (1978). *Political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in America*. Santa Monica, CA: Goodyear Publishing.
- Sachsman, D. B. (1977). Public Relations influence on coverage of environment in San Francisco area. *Journalism Quarterly*, 54. 54-62.
- Schudson, M. (1996).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revisited. In J. Curran, & M. Gurevitch (2nd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 141-159). NY: Arnold.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Lexington, MA: D. C. Heath.
- Stempel, G. (1962). Content Patterns of Small and Metropolitan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39(2). 88-91.
- Stempel, G. (1959). Uniformity of Wire Content in Six Michigan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36. 45-48.
- Turk, J. V. (1991). Public relations' influence on the news. In D. L. Protes, & M. McCombs (Eds.), *Agenda setting: Reading on media, public opinion, and policymaking* (pp. 211-22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alters, L. M. & Walters, T. N. (1992). Environment of Confidence: Daily Newspaper Use Press Release. *Public Relations Review*, 18. 31~46.

A Study of the Impact of Newspaper Scale on the Use of Local Government's News Releases by Local Newspaper

Hyo-yun Nam

Assistant Professor,

Taegu Science College

Gyo-tae Ku

Assistant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newspaper scale on the use of local government's news releases by local newspapers. Thus, to see the impact, the four local newspapers and the local government's news releases were content-analyzed. Further, through a depth interview,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local journalists' thoughts on using the news releases published by local government.

This study hypothesiz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ewspaper scale and the degree of the use of news release, between the scale and the dependent rate on the news releases, and propos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and the writing styles(neutral, negative, neutral, positive). The research results supported the first two hypotheses, and the third partially. Thus, the greater the newspaper scale, the higher the degree of the use of news release by local newspaper. And the greater the scale, the higher the dependent rate on the news releases. In addition, the smaller newspaper in the scale showed more positive and negative writing styles than the larger did. On the other hand, the larger newspaper tend to have more neutral writing style than the smaller did. The interviewee also indicated, in terms of newspaper scale, there was diverse perspectives on the use of news release

Keyword: newspaper scale, news release, local newspaper, local government.